

여수단지, 교복 나눔 캠페인 동참

전남 여수시는 3월6일 <2014년 희망날개 교복 나눔 캠페인>을 개최하고 시민, 기업, 사회단체 등 민·관 협력으로 지역 중·고등학생 355명에게 7100만원의 교복 구입비를 전달했다.

2011년 처음 시작한 교복 나눔 캠페인은 첫해 2280만원의 구입비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면서 4년째를 맞았다.

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7개 기업과 단체,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인당 20만원의 교복 구입비를 제공했다.

4년 동안 후원을 계속한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해 GS칼텍스, LG화학, 금호P&B, 금호미쓰이, 금호폴리캠, 여천NCC, 롯데케미칼, 한화에너지, 명인인베스트, YCC, 제일산업기술 등 여수산업단지 입주 석유화학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.

여수시 관계자는 “<희망날개 교복 나눔 캠페인>은 기업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·관 협력 맞춤형 서비스”라며 “모금액이 해가 갈수록 늘어 대표적인 복지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”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14/03/06>